

* 중국투자기업

노동력부족에 대비하라(2)

- I. 중국 노동시장의 변화
- II. 농민공의 출현
- III. '用工荒' 문제의 대응
- IV. 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
- V. 시사점 및 대응방안

출처 : 지식경제부 해외진출기업지원단

II. 농민공의 출현

1. '농민공' 이란?

- '농민공(農民工)' 이란 지난 78년 개혁개방 이후 산업화 · 도시화 · 현대화와 맞물려 대량의 농촌 잉여 노동력이 도시지역으로 이동하여 취업하는 직공을 말함
 - 농민공이라는 특수한 신분의 기원은 과거 마오저동(毛澤東) 시대의 도농(都農) 이원화 체제 하에서 농촌에 호적을 두고 도시로 진입하여 노동활동에 종사하거나 혹은 거주지 및 기타지역의 비농업산업에 노동력을 제공한데서 비롯됨
 - 현재 가장 중요한 원천인 농민공은 농촌에 호적을 두고 있으며 도시로 진입하여 노동활동에 종사하거나 혹은 거주지에서의 비농업산업에 노동력을 제공하며 새로운 주요 사회계층으로 등장하게 됨
 - 2007년 현재 중국 농촌인구 7.3억 명중 농민공 숫자는 약 1.4억 명 정도로 추산됨
- 농민공의 주요 취업 분야는 제조업이 전체의 1/3에 육박하는 30.3%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건설업 22.9%, 서비스업 10.4%, 요식 · 호텔업 6.7%, 유통업 4.6% 등의 순으로 나타남
- 농민공의 지역별 비중을 보면 베이징, 상하이 등 대도시 지역이 40%에 육박하여 가장 높은 수치를 보임

〈 중국 주요 지역별 농민공 비중(2005) 〉

(단위 : 천명)

구분	현지 인구(a)	현지 도시 취업자수(b)	외래 인구수(c)	현지 인구중 외래인구 비중(d=c/a)	현지 취업자중 외래인구 비중(e=c/b)
베이징	15,380	9,204	5,688	37%	62%
상하이	17,780	8,559	7,067	40%	83%
장수성	74,750	38,777	10,897	15%	28%
저창성	48,980	32,029	10,778	22%	34%
푸젠성	35,350	18,685	7,461	21%	4%
광동성	91,940	47,021	26,552	29%	56%

* 자료 : 中國統計年鑑(2006), 〈2005年全國1%人口抽樣調查主要數據公報〉

2. 농민공의 경제적 지위

■ 중국 경제발전의 숨은 일꾼으로 자리잡고 있음

- 2006년 국무원의 '중국농민조사연구보고(中國農民工調查報告)'에 따르면 과거 농민공은 농한기에 잠깐 도시에 취업했다가 농번기가 되면 다시 농촌으로 돌아가는 것과는 달리 점차 전업 도시노동자로 바뀌고 있는 추세임
 - 농촌 · 도시 간 이동에서 도시민화가 되고 있으며, 생존형 취업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받는 평등을 추구하는 것으로 바뀜
 - 각 산업별 노동 인구중 농민공이 차지하는 비율은 2차 산업 58%, 3차 산업 52%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

- 과거에는 낮은 수입과 열악한 근로조건, 도농 분할 제도 등으로 특정 지역에 정착하지 않는 농민공 비율이 높았으나, 점차 농민공의 도시 정착과 비농업인구 전환이 늘어나는 추세임
 - 2004년 기준 6개월 이상 도시에서 일하는 농민공 비중은 81.3%로 전년대비 3.7%p, 2002년 대비 6.4%p 늘어남.
 - 이밖에 전체 가족이 도시로 이주한 경우도 2004년까지 2,470만 명에 달함



■ 농민공의 도시 진입은 초기 주강삼각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광동성 위주에서 장강삼각주 지역 중심의 동부 연안 지역으로, 다시 중서부 대도시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음

- 현재 농민공의 최대 유입지는 장강삼각주를 중심으로 하는 동부 연안지역임. 2004년의 경우 동부지역에 유입된 농민공은 전년대비 7.4% 증가한 448만 명에 달해 이 지역 농민공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8%에서 70%로 증가함
 - 동부지역 도시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노동집약 산업이 중서부지역 도시로 이전하는 경향이 나타남에 따라 농민공의 이동 흐름도 이를 따르는 현상이 최근 나타나고 있음

3. 농민공 관련 사회문제의 대두

■ 농민공은 중국 산업경제 발전에 있어 중요한 원동력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, 국가의 사회 복지는 물론, 공공재의 이용에 있어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, 이에 따라 이들의 사회적 위치 및 권익, 처우 등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낳고 있음

① 낮은 임금 및 열악한 근무조건

- 농민공의 평균 임금수준은 일반 국유기업 직원과 비교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, 베이징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이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임
 - 베이징 국유기업 직원 평균 임금은 농민공의 2.7배에 달하며 저장성과 광동성의 경우 2.4배 수준으로 나타남
- 2007년 초 중국 노동자사회보장부의 조사(복수 응답)에 따르면 농민공이 춘절(구정) 이후 회사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이유로 △임금이 너무 낮다 51% △초과 근무가 너무 많다 22% △배우는 기술이 없다 14% △전망이 없다 16% 등으로 나타남. 특히 임금이 너무 낮아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응답 비율은 2006년 대비 8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 - 이 조사에 따르면 임금이 낮고 초과 근무가 너무 많다는 비율이 전체의 73%를 차지하고 있으며, 이는 노동력 유실의 주요 이유가 되고 있음

② 농민공 임금체불 현상 심각

- 농민공 임금에 대한 체불행위가 만연하고 있어 시위 등 사회불안 요소가 되고 있는 실정임. 이를 금지하기 위해 중국정부 차원에서 법규정비 및 처벌 강화를 통해 농민공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

③ 여성 농민공에 대한 차별대우

- 중국 사회과학원 부녀/성별연구센터의 〈농촌이전 공인의 도시노동력시장에서의 성적차별 보고서〉에 의하면, 남성에 비해 여성 농민공은 임금과 처우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음
 - 여성 농민공의 월 평균 급여는 910.78위안으로 남성 농민공의 1,100.24위안과 비교해 약 200위안의 격차가 존재함

④ 직업 기술훈련 부족

- 국무원의 농민공조사보고에 따르면 농민공의 76.4%가 기술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. 특히 건설부 통계에 따르면 건축업에 종사하는 농민공 3,200만 명 중 직업교육에 참가한 경우는 10%에 불과함
 - 농민공에 대한 기술훈련은 주로 사회적인 예산 및 인식부족, 규범화 미비 등의 이유로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기술수준 부족은 직업의 안전성 및 임금수준을 낮추는 요인임

■ 농민공 문제의 해결은 도농 경제격차 해소, 산업별 발전격차 축소, 삼농(三農) 문제 해결 등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중국정부와 공산당, 사회 지도층에서는 농민공을 둘러싼 각종 문제점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음

- 2008년 정부공작 보고에서 원자바오 총리는 농민공에 대해 “경제적으로 빈곤한 농민공 자녀에 대해 평등한 의무교육을 받도록 할 것”, “도농 노동자에 대해 차별없는 평등한 취업제도를 만들 것”, “농민공과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관심을 확대할 것”, “농민공에 대한 양로보험제도를 만들 것” 등등의 말로 농민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 바 있음
- 중국 국무원은 2006년 3월 27일 '농민공 문제 해결에 관한 의견(國務院關於解結農民工問題的若干意見)'을 통해 농민공 문제 해결을 주요 핵심과제중 하나로 선정하고 노동계약·임금지불·사회 공공서비스 혜택 등 농민공의 권리 보장을 강조한 바 있음

▶ 다음호에 계속